

# 정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전남의대 설립 공식화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 고려  
목포·순천대 통합 중요...순천대, 찬반 재투표 결과에 관심 집중

2027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 중인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고려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사인력은 모두 10년 간 지역 복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에 정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검토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 3차 회의가 열렸다. 보정심은 지난달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사인력 공급추계위원회는 12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2035년에는 의사가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만1136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보정심은 추계 결과를 존중해 사실상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정심은 이날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인력의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을 증원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력은 전부 지역의사제 인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대의 증원 인력은 전원 지역의사제 적용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년 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의사제에 준하는 방식이다.

문의 중 지자체 혹은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등 두 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보정심은 이와함께 의사 추가 양성을 위해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신설을 위한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으로, 보정심의 발표대로라면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정심은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의지가 공식화되면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순천대가 학생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순천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통합 추진과 관련해 학생 의견수렴 결과와 지난 13일 개최된 전체 교수 긴급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16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통합 찬반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대 학생자치기구는 지난 12일 대학통합 재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에서, 재투표 찬성 55.2%의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순천대 측은 학생 의견수렴 결과와 교수회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재학생 대상 대학통합 찬반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정심이 추가 의료 인력 양성 방안으로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설립을 강력하게 고려 중인 만큼 2027년도 전남 국립의대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2027년 개교는 물론 두 대학의 통합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추운 날씨 든든하게 드세요” 14일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에서 직원과 자원봉사캠프지들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 지역 돌봄이웃 30세대에 전달할 직접 만든 밑반찬과 육계장을 포장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 전남도, 신안 팔금도 섬 숲 경관복원 본격 추진

국비 20억원 확보...자생 난대수종 12만여 그루 식재 등

전남도가 기후변화와 인위적으로 훼손된 신안 팔금도 난대숲 복원에 나선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신안 팔금도 일원에 자생 난대숲을 조성하기 위한 '섬숲경관복원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섬숲경관복원사업은 훼손된 도서 해안 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지원받아 목포 등 15개 시군 도서 해안지역에서 총 313ha 규모의 섬숲을 복원했다.

섬숲경관복원사업이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2026년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전남도는 신안 팔금도의 산림환경 복원 필요성을 산림청과 기획재정부, 국회에 지속 건의해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28억원을 확보했다.

팔금도 섬숲은 지난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복원 수종을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이달 말 산림청 중앙설계심의의를 거쳐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팔금도의 적합한 토양 환경을 고려해 토양 개량으로 식생 기반을 조성한 뒤 가시나무·동백나무·후박나무 등 자생 난대수종 12만 5000여 그루를 식재할 계획이다.

또 식재한 나무들의 현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에서 기른 묘목을 활용하고, 일부 수종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공급받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사업 완료 후에도 유지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숲 경관 변화를 비교,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복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섬지역 산림의 생태적 가치가 훼손되고 쇠퇴하고 있다"며 "섬숲 경관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산림 생태계 다양성을 높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방평가 라운지

##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단 광주시 부실행정 탓”

박수기 광주시의원 주장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3공구 공사가 착공한 달 만에 전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수기(광산구 5)시의원이 광주시의 부실 행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14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박 의원은 “이번 공사 중단 사태는 단순한 공정 지연 문제가 아니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 지장물과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책임 있는 공법 재검토와 투명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완지하차도 인근 700m 구간 지하에 한전 지



중선과 열수송관 등 주요 지장물이 밀집해 있고, 고층 건물이 인접해 기존 저심도 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3공구 전체 2.6km 중 2.1km 구간의 공사가 멈춰섰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하를 깊게 파는 중대심도 터널 공법과 풍영정전 이면도로 우회 변경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설계 오류의 피해를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공법 변경 시 지반 침하 등 안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검증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문인 북구청장, 사퇴 철회 이어 출판기념회 연기...입지자들 촉각

문인 북구청장이 오는 18일로 예고했던 출판기념회를 돌연 연기했다.

문 청장은 앞서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임을 예고했다가 지난 7일 사퇴를 철회했다.

그는 출판기념회 연기 사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역할을 논의를 제시했다.

문 청장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출판기념회를 당분간 연기하고 시·도통합 과정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며 “시·도통합이 자치단체장 선거의 유·불리로 활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통합이 이

루어지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청장은 지난해 10월 23일 국가컴퓨팅센터와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업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10일에도 통합이 현실화되더라도 개인 자리나 정책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구청장 출마예정자 등은 문 청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북구청장 3선 도전과 광주시장 출마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지난 7일 청장직 사퇴 철회 당시에도 일부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와 북구의회의 의원들은 “공직자의 책임성과 주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공개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 청장이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출마 결정을 늦추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주민과 정치권 모두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